

주님의 회복 안의 네 가지 큰 기둥

(목요일—저녁 집회)

메시지 3

첫 번째 큰 기둥—진리

(2)

신성한 실재인 신성한 진리를 읽

성경: 요 1:14, 8:32, 14:6, 16-17, 15:26, 16:13-15, 요일 5:6, 20

I. 신성한 실재인 신성한 진리는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요일 5:6.

- A. 실재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실재화(實在化)된 하나님의 요소이다—요 1:14.
- B. 신성한 실재는 하나님이다.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어 신성한 것들의 실재가 되셨다—요일 1:5, 4:8, 요 1:1, 14.
- C. 신성한 실재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며, 하나님과 사람의 실재, 구약의 예표들과 상징들과 그림자들의 실재,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재이시다—골 2:9, 16-17, 요 1:18, 51, 11:25, 14:6.
 1.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실재이시다—골 2:9.
 2. 진리는 신성한 것들의 실재이고, 이 실재는 그리스도 자신이다—요 8:32.
 3. 신성한 것들의 실재는 그리스도를 통해 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재화가 된다—요 14:6.
- D. 신성한 실재는 그 영이다. 변형되신 그리스도이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재이시고 신성한 계시의 실재이시다. 따라서 그 영은 실재이시다—고전 15:45하, 고후 3:17, 요 14:16-17, 15:26, 16:13-15, 요일 5:6.
- E. 신성한 실재는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재 그리고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재를 계시할 뿐 아니라 전달해 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실재이다—요 17:17.
 1.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실재를 지니고 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헛되고 거짓인 말과는 달리, 실재 곧 진리이다—요 8:44.
- F.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 곧 신성한 삼일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따라서 이 셋은 신성한 실재의 실질의 기본 요소들이며, 사실상 하나의 실재이다—요 1:1, 14, 14:6, 요일 5:6.
 1. 이 하나의 신성한 실재는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실질이다.
 2. 따라서 신성한 실재가 신성한 말씀 안에서, 계시된 신성한 실재가 되어, 신성한 말씀을 실재가 되게 한다—요 17:17.
 3. 신성한 말씀은 이 하나의 신성한 실재를 믿음의 내용으로 전달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신약의 실재로서 신약 전체에 계시된 복음의 실질이며, 그 실재는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실재이다—엡 1:13, 골 1:5.

- G. 신성한 실재는 거짓말과 반대되고, 옛 창조물의 헛됨과 반대되며, 참되신 하나님을 대치하는 우상에 속한 대치물들과 반대된다—요 8:44, 전 1:2, 요일 5:20-21.
1.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이고 죽음과 어둠을 가져온다—요 8:44.
 - a. 어둠에는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이 있다—요일 1:6.
 - b. 사탄적인 거짓말은 사탄적인 어둠의 표현이다—롬 1:25, 3:4.
 2. 어떤 것이 아무리 선하고 탁월하고 놀랍고 훌륭할지라도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해 아래 있는 헛되고 헛된 것의 일부이다. ‘해 아래’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새 창조물만이 헛되지 않고 실재이다—전 1:2-3, 고후 5:17.
 3. 무엇이든 신성한 실재를 대치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우상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요일 5:20-21.
 - a. 우상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대치하는 이단적인 대체물이며, 실재이신 하나님을 대치하는 헛된 대치물이다.
 - b. 우리는 이단적인 대체물과, 참되시고 실재이신 하나님을 대치하는 모든 헛된 대치물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요일 5:21.

II.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음으로써 신성한 진리, 곧 신성한 실재를 알 수 있다—요일 5:20.

- A.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참되시고 실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요 1:14, 18, 요일 5:20.
1. 이러한 이해력은 실재의 영으로 말미암아 빛 비춤을 받고 강화된 생각의 기능으로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신성한 실재를 깨닫는 것이다—엡 4:23, 요 16:12-15.
 2.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능력으로서, 실재의 영의 빛 비춤을 받아 새롭게 된 생각을 통하여 거듭난 영 안에서(엡 1:17)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요 17:3, 엡 1:17.
 3.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다—요 1:12-13, 3:6, 15, 17:3.
- B.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 참되신 분’에 대해 두 번 말한다.
1. ‘그 참되신 분’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이 되신 하나님, 곧 객관적이시지만 우리의 생활과 체험에서 참되신 분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2. 그 참되신 분은 신성한 실재이다. 그 참되신 분을 아는 것은 이 실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함으로써 신성한 실재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3. 이 절은 하나님 자신인 신성한 실재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실재가 된 것을 가리킨다. 이전에 우리에게 객관적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적인 실재가 되셨다—요일 5:6.
- C. 참되신 분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요일 5:20.
1.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2. 이것은 또한 참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호내재의 방식으로 하나이심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아들 안에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참되신 분 안에 있는 것이다.
- D.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분’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육체 되시어 오심으로써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자신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
1. 이 모두는 우리에게 참되시고 실재이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2. 이 참되시고 실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어,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분’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이분, 곧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실지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4.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제 우리의 체험에서 참되신 분은 참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 E. ‘참되신 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내재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신성한 실재를 안다—요일 5:20, 요 17:3.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신성한 진리

진리의 의미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요한은 신성한 진리에 관해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의 정의를 내리기란 어렵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6절과 같은 구절에 있는 진리가 건전하거나 올바른 교리를 언급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중국어로 ‘진리’라는 말은 참된 교리를 뜻한다. 많은 이들이 영어 단어 ‘진리(truth)’에 대해 비슷한 이해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최소한 성경에서도 발견되므로 옳은 교리를 뜻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진리에 대해 다소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으며, 진리를 거짓된 것에 반대되는 참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참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진리를 말한다고 한다.

만일 성경 안에서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통적이고도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 성경 안의 진리를 올바른 교리라고 보는 전통적인 견해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그 단어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라는 단어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aletheia)’이다. 이 단어를 연구할 때 나는 여러 가지 어휘 사전과 용어 색인을 참고했다. 나는 특히 키텔의 <신약의 신학 사전>에 있는 진리에 관한 항목으로 도움을 얻었다. 더 나아가 나는 ‘알레테이아’나 그에 관계된 단어가 사용된 신약의 모든 구절들도 고찰해 보았다. 이 구절들을 문맥 속에서 연구해 보고 또 어휘 사전들과 용어 색인들을 참고하고 나서 나는 신약에 있는 진리의 의미에 관해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 결론은 회복역 요한일서 1장 6절의 진리에 대한 긴 각주에 요약되어 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각주의 첫 부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aletheia)’는 (공허와 대립되는) ‘실재’, ‘진실’, ‘정확’, ‘참됨’, ‘성실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요한 자신이 독특하게 사용한 단어이며, 신약에 있는 심오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단어는 신성한 계시의 내용인 신성한 경륜의 모든 실재를 가리키며,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밝혀진다.

하나님

신약에 따르면, 진리는 먼저 하나님이다.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되셔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 신성한 본성, 신성한 능력, 신성한 영광과 같은 신성한 것들의 실재가 되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계시된 대로 우리가 그분을 은혜로 누리기 위한 것이다(요 1:1, 4,

14-17).

그리스도

둘째로 신약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닌 자신 안에 거하는 분(골 2:9)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의 실재이다. (a) 하나님과 사람(요 1:18, 51, 딤후전 2:5), (b) 구약의 모든 예표들과 그림들과 그림자들(골 2:16-17, 요 4:23, 24), (c) 신성한 생명과 부활(요 11:25, 14:6), 신성한 빛(요 8:12, 9:5), 신성한 길(요 14:6), 지혜, 의, 거룩하게 함, 구속(고전 1:30)과 같은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실재이다(요 14:6, 엡 4:21).

그 영

셋째로 진리는 그 영이다. 그 영은 변형되신 그리스도이시고(고전 15:45하, 고후 3:17) 그리스도의 실재이며(요 14:16-17, 15:26), 신성한 계시의 실재이다(요 16:13-15). 그러므로 그 영은 실재이다(요일 5:6).

이제 우리는 신약 안의 진리, 즉 ‘알레테이아’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진리란 신성한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육체가 되시어 우리가 소유하기 위한 모든 신성한 것들의 실재가 되셨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누리기 위함이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위한 신성한 것들의 진리, 곧 우리의 소유를 위한 신성한 것들의 실재이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실재로서 소유해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그분을 은혜로 누려야 한다. 따라서 신성한 실재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은 모든 신성한 것들의 실재이다.

신약 안의 진리는 또한 육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시다. 신격의 충만의 체현으로서 육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실재, 구약의 예표들과 상징들과 그림자들의 실재,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재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실재란 무엇인가? 실재는 육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다. 실재는 그리스도이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러한 분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예표들과 상징들과 그림자들과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재이다. 구약에는 많은 예표들과 상징들과 그림자들이 있다. 그리스도는 그것들의 실재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또한 빛, 생명, 지혜, 의 등과 같은 많은 신성하고 영적인 것들을 읽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의 실재이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진리’나 ‘실재’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단어가 먼저 하나님을 언급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신약에서 진리란 변형되신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실재이시자 신성한 계시의 실재이신 그 영을 가리킨다. 이런 이유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요한은,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재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가 또한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재 그리고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재를 계시할 뿐 아니라 전달해 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실재이다(요 17:17).

말씀은 삼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진리의 넷째 방면인 말씀이 사실상 진리의 처음 세 방면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과 또한 신성한 말씀이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97-100쪽, 메시지 10, 101쪽)

참되신 분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요한은 ‘그 참이신 분(Him who is true)’을 두 번 말한다. 더 좋은 번역은 ‘참되신 분(true one)’이다. 하나님을 다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참되신 분’이라는 용어는 주관적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구절에서 객관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체험 안에서 참되신 분이 되신다.

‘참되신 분’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특히 ‘참되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여기에서 ‘참되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알레디노스(alethinos)’로서, ‘거짓된’ 또는 ‘모조된’의 반대 의미인 ‘참된’ 또는 ‘실재인’을 뜻한다. (진리, 진실, 실재를 뜻하는 명사 알레데이아(aletheia) - 요 1:14, 14:6, 17 - 에서 파생된 형용사이다.) 사실상 참되신 분이 실재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이 신성한 실재를 알 수 있도록, 즉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참되신 분을 아는 것은 이 실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함으로써 이 실재를 아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의 실재가 되셨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오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이 실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 한 때 우리에게 객관적이었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실재가 되셨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다.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으로 하나이다.

요한은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고 말할 때 매우 중요한 요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는 참되신 분을 알고 실재이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할 뿐 아니라, 이 실재 안에 있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다.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요한은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참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시므로(골 2:9)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20절 후반절을 살펴보자.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육체 되시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 자신을 아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 모든 방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시고 실재이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참되시고 실재이신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어,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분(This)’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요한은 ‘그분(He)’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분(This)’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다. 더욱이 요한은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모두 가리키기 위해 ‘이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임을 본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교리적으로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으로 참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들은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참되신 분

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이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참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참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이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분들 안에 있다면 그분들은 한 분이다.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보았다. 이것은 그분들 안에 있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분들이 하나이심을 뜻한다.

더욱이 우리가 참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들은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먼저 요한은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참되신 하나님을 말한다. 여기에서 참되신 분과 참되신 하나님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참되신 분은 참되신 하나님으로 불리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리신다. 이것은 먼저 그분들이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 안에 있을 때 그분들은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20절의 ‘이분’이 가리키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체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가리킨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 밖에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객관적인 분들이 아니시고 우리의 체험 안에서 더 이상 그분들은 둘이 아니시다. 우리가 그분들 안에 있을 때 그분들은 우리에게 한 분이 되신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분’이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분’은 누구인가? ‘이분’은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또한 ‘이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포함한다.

우리는 참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우리의 체험에서 이 참되신 분은 참되신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밖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이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 생명 안에 있다! 우리는 참되신 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참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이분’이 참되신 하나님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체험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그분은 그분 자신 안에서 여전히 참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참되신 분이심을 증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게 된 이후 그분은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이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우리가 지금 참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으며,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그분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낸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요한일서 전체의 중요한 결론이 있다. 이 서신은 현재 우리가 진실로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되신 분이시고 실재가 되심을 계시한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실재와 생명이 되신다.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0, 377-378, 380-382쪽)